

텅 빈 종이에 無爲를 담아내다



영담한지미술관장 영담 스님은 30여 년간 전통한지를 연구하면서 예술작품을 만들어오고 있다.

전통한지예술가 영담 스님, 첼시 갤러리 전시 참가

“종이가 좋아 종이와 함께 한 삼십여 년. 거기에 늘어감의 여유를 보태어 닥종이와 함께 무위(無爲)의 춤을 춘다.” (닥종이에 대한 영담 스님의 시(詩) 중에서)

30여 년간 전통한지를 연구해온 영담한지미술관장 영담 스님이 세계 미술시장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뉴욕 첼시에 데뷔한다.

전통한지(닥종이) 만들기부터 예술까지 전 과정을 습득해 창작활동을 펼친 영담 스님은 첼시 CATM 갤러리에 초대돼 ‘ART LIVE 2011’에 참가한다. 스님은 9월 1일부터 한 달간 그의 작품 ‘승화(昇華)의 기운(氣運)’을 전시할 예정이다.

세계 25개국 30여 명의 작가가 초대된 이번 전시회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전시회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각 나라 유망 작가를 발굴해 뉴욕 미술시장에 소개하는 가교역할로도 유명하다.

2011년 4월, 영담 스님은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인 타우슨(TOWSON) 대학으로부터 초청 받아 미국학생들에게 4회에 걸쳐 ‘한지의 역사와 예술성’을 강의하고 작품전을 가졌다. 이외에 워싱턴의 라리드 아트센터에서 열린 미국 유명 종이작가의 작품 활동 행사에 초대 받아 한국 전통 한지를 소개하고 작품 제작을 선보인다.

이곳에서 스님의 작품이 첼시의 갤러리 디렉터 눈에 띄어 초대된 것이다. 예술 작가라면 누구나 한번쯤 데뷔하길 소망하는 뉴욕 첼시의 한

갤러리에 작품이 걸린다는 건 명예로운 일이지 어찌 보면 행운일 수도 있다. 영담 스님은 뉴욕 데뷔를 두고 “그저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세계 미술시장의 중심에 있는 첼시 갤러리 디렉터들은 각 나라의 특징을 띠면서도 작품성과 상업성을 갖춘 작품만을 골라 전시한다. 영담 스님의 작품이 한국적 매력과 모던한 미술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아본 것이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품 ‘승화(昇華)의 기운(氣運)’을 통해 용(龍)이라는 상상의 동물이 상승(上昇)하려는 희망의 기운을 표현하려 했다.

직접 제조한 두꺼운 한지에 자연 염료와 아크릴 물감 등을 문헌 손과 붓으로 빠르게 터치한 스님의 작품에서는 닥섬유가 받아들이는 물감의 퍼짐과 깊이에 인해 상서롭게 움직이는 용의 기운이 느껴진다.

“나에게 있어서 ‘그리기’ 또는 ‘만들기’라는 창작행위는 살아있음의 또 다른 표현이며, 생명의 활기와 소통하고, 더불어 공생하는 한마음 우주관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릴 적부터 구름,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흐르는 냇물 등 자연을 관찰하기 좋아했던 스님은 종이로 예술 활동 하게 된 것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스님은 갤러리 디렉터 눈에 띄어 초대된 것이다. 예술 작가라면 누구나 한번쯤 데뷔하길 소망하는 뉴욕 첼시의 한



뉴욕 맨해튼 첼시에 위치한 CATM갤러리의 전시 홍보문. 영담 스님 이름이 맨 끝에 있다.

때 아버지의 환자였던 한 노인이 물난리로 집과 재산을 잃어 스님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는 양평에서 닥종이를 만들던 지장(紙匠)이었던 것. 스님은 노인을 따라 전통 종이를 만들기 시작했고, 종이의 본고장 원주에 가서 종이에 관한 역사와 전통을 두루 공부했다.

어릴 적부터 세속에 뜻이 없었던 영담 스님은 고등학교 시절 의상·사범 대사의 일대기를 읽고 그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 출가를 했다. 1985년 전통한지연구소 설립한 스님은 그동안 내면에 감춰져 있던 예술성을 한지에 드러내기 시작했다.

영담 스님은 종이의 크기, 작품의 주제, 표현기법에 구애 받지 않고 무심의 경지에서 때에 따라 알맞게 나뭇잎, 돌맹이 등 다양한 천연 염료를 사용해 작품을 표현해왔다.



‘아트 라이브 (ART LIVE) 2011’에 출품한 작품인 ‘승화의 기운’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스님은 1988년부터 ‘서울종이잔치전’ ‘포스코국제아트페스티벌’ 등 10여 회의 크고 작은 전시회에 출품했다. 또 1987년에는 동국대 개교 80주년을 맞아 ‘신수화엄경’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 국보급 영인지 제작에도 참여했으며 2007년 경북 청도에 영담한지미술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길고 짧은 닥섬유들이 자연스럽게 얼크러진 한지의 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얽혀있는 세상의 존재의 연기성을 느끼게 됩니다.”

영담 스님은 한지를 만들고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전 과정이 수행 그 자체라고 말한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종이와 같이 언제나 텅 빈 ‘마음바탕’이 있기에 우리는 자유롭고 쾌활하며 각자의 인생에 멋진 화가가 될 수 있습니다.”



2008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초대전 출품작인 ‘관세음보살(여머니)’

선(禪)은 ‘푸른 산 흐르는 물’

김대열 동국대 교수
9월 10일까지 개인전

강하면서도 단순한 붓질로 수목의 기(氣)를 화폭에 담은 전시회가 열린다.

김대열 동국대 한국화 교수는 서울 종로구 장은선 갤러리에서 9월 10일 까지 ‘푸른 산 흐르는 물’ 전시회를 연다.

김대열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강한 필력과 에너지를 담아 시원한 폭포수와 물줄기가 흐르는 신작 20여 점을 선보인다.

김 교수의 관심사는 회화와 선(禪), 즉 깨달음과 아름다움의 조화이다. 선화의 특징인 뜻을 얻어 형상을 버린다는 경지를 예술적 원천으로 삼아 대상이 지니고 있는 본질 그 자체를 추구한다.

그는 선과 예술에 대해 “선이란 우리의 본성을 깨닫기 위한 예술이며, 예술은 우리의 본성을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김 교수는 선을



‘물은 차고 강은 고요하네’ (한지에 수묵채색)

이용해 스스로만의 조형언어를 찾아낸다.

김 교수의 작품에 담긴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물은 움직이는 것의 모든 존재를 상징한다. 그가 그리는 산, 숲, 물에서 느껴지는 것은 본질에서 우리나라의 진실의 힘이고, 이는 감상하는 이의 감성의 문을 열게 해 사유의 공간으로 환치시킨다.

단국대 대학원과 국립 대만 사범대학 미술연구소 석사를 마친 김 교수는 개인전 11회와 대한민국 현대한국화페스티벌, 취리히 국제아트페어, 제네바 국제아트페어 등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가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이사, 한국불교학회, 한국문화사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02)730-3533 이나은 기자

바흐 음악 들으며 三昧에 들어요

니르바나 앙상블, 9월 8일 정기연주회 ‘바흐와 삼매’

“바흐의 이름은 ‘바흐(독일어로 시냇물, 작은 개천이라는 뜻)’가 아니라, ‘매어(바다, 대양이라는 뜻)라야 했다”

베토벤은 바흐를 이렇게 평했다. 바흐의 음악이 바다만큼이나 넓고 깊다는데 대한 비유일 것이다. 교회 음악가로 활동한 바흐는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수많은 곡을 남겼다.

바흐는 인간의 나약한 의지를 넘어선 무엇인가를 향한 강렬한 기도, 세속의 수선스러움을 등지고 앉아 정신을 한데 모으고 몰입하면 만나게 되는 절대적인 경지의 희열을 음악으로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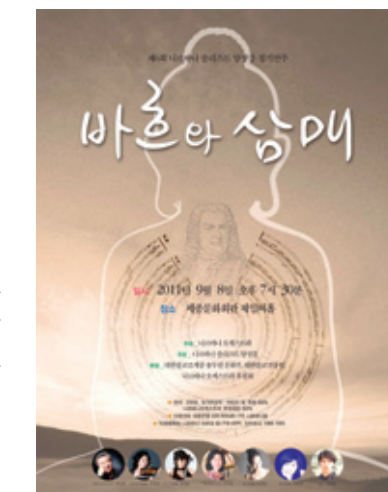
그의 음악을 들으면 범부의 애절한 흐느낌을 멈추고 존재의 기원을 향해 길을 떠나는 구도자의 고독한 순례의 모습이 떠오른다.

니르바나 솔리스트 앙상블(음악감독 김의명)은 6번째 정기연주회

‘바흐와 삼매(三昧)’를 9월 8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연다.

이번 공연에는 YTN 지식카페 진행자 이미령 북칼럼니스트의 해설과 김의명 음악감독의 지휘로 첼로 솔로에 흥성은 단국대 교수, 바이올린 솔로 강형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단장, 제1바이올린에 유지연, 제2바이올린에 최원정 등 유수의 연주자가 함께 한다.

공연에서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3번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을 비롯해 작곡가 정영빈이 편곡한 바이올린 무반주 파르티타 2번 중 사콘느와 골든베르크변주곡 등이 선보인다. 정영빈은 아시아작곡가연맹신인콩쿨과 비오티국제작곡콩쿨 등 다수 음악 콩쿨에서 수상한 차세대 유망 작곡가이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관계자는



“공연을 통해 존재의 기원을 향해 길을 떠나는 구도자의 고독한 순례를 바흐의 선율을 타고 삼매의 깊은 강으로 건너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티켓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사무국(02-718-4599), 인터파크(1588-1555)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전석 2만원이다. 이나은 기자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스님, 불자 연금보험 변액, VUL, 종신 보험

- 1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평생동안 세금없이 매월 ⑤백만원이상 받는 연금이 있다면!
- 2 건강이상시(사고, 재해시) 무상치료 받고 보상 받는다면!
- 3 여유자금 00원이 있다면 = 「안정성 + 수익성 + 유동성」 = 인플레이션 방지
- 4 비과세 초스피드 00원 목돈마련 계획 전문가
 - (1) 공인 재무상담 전문가
 - (2) 공인 Risk컨설팅 전문가
 - (3) 토지 분석 전문가 (건국대학원 수료)
 - (4) 공인 변액 자산관리 컨설팅 전문가

무료상담 환영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준비』 강의 요청시 언제라도 스님과 불자님은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小佛子 慧峰 합장

상담전화
011-335-6389 / 02-471-2356

20년 오랜음씨 탕화불상에숙원 **갈상**

8각좌대 **책보부처님** 전문염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책보도불도배**

있는곳: 경북 경주시 서건동 한빛길 28번 14호
문의: 010-5595-8533
예약: 054) 773-8533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덕산방’의 주인공, 덕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과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 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님의 6년여 임상 거처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천연연고비누 재료: 서자초, 홍남석화, 초용피,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② 천연연고비누 효과: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③ 사용방법: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④ 보관방법: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씻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제철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

여래원 원장 해파 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